

순천, 미래인재 육성... 청년친화도시 '도약'

LOCAL

2025년 4월 15일 화요일

시, 500억 투입... 5개 분야 106개 사업 추진 일자리·주거·교육·복지 등 정책 세분화 운영

순천시가 500억원 규모의 '2025년 순천시 청년정책 시행 계획'을 확정했다. 14일 순천시에 따르면 최근 시청 소회의실에서 청년정책위원회를 열고 청년정책 시행 계획을 5개 분야(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참여·관리) 106개 사업으로 세분화했다.

우선 시는 일자리 지원 강화로 청년 친화 정주 환경 조성에 나선다. 문화콘텐츠 산업을 기반으로 한 지역 특화 인재 육성에 초점을 맞췄다.

글로벌대학30 사업을 통해 애니메이션·문화콘텐츠 캠퍼스를 구축하고 글로벌 아카데미 운영과 창작공간 조성으로 지역

특화 인재를 교육·발굴할 예정이다. 또 배출된 인재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도록 콘텐츠 기업 유치, 인건비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청년 일자리 지원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청년 구직을 돕기 위해 도전 지원사업으로 은둔·고립 청년에게 직업훈련과 참여 인센티브를, 청년 성장프로젝트로 맞춤형 구직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청년센터에서는 구직 청년들을 위해 꿈청클래스, 꿈청상담소, 꿈청의상실을 운영하고, 창업연당에서는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해 단계적인 창업 지원, 창업 상



순천시 청년정책협의체 위원들이 최근 청년센터에서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담 및 특강, 사업화 자금 지원 및 공유오피스 운영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공연·전시 관람비 최대 15만원)과 문화복지카드(19~28세 대상, 연 25만원)를 지원한다.

18세부터 45세까지 청년들이 성장해 결혼과 출산, 주거 안정에 이르는 생애 맞춤형 복지도 강화한다.

10~20대 청년들의 문화 활동과 자기개발 지원을 위해 문화예술패스 사업(19세 대상, 공연·전시 관람비 최대 15만원)과 문화복지카드(19~28세 대상, 연 25만원)를 지원한다.

청년 꿈 찾기 도로서원 사업을 통해 취

업·자격 관련 도서 구입비를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결혼과 출산을 앞둔 30~40대 청년층을 위해서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순천시에 거주하는 49세 이하인 부부를 대상으로 결혼 축하금을 생애 1회 200만원을 지급하며, 임신·출산 지원 사업으로는 난임부부 시술비 최대 250만원 지원, 임신부 산전 검사 지원, 엽산제·철분제 등을 지원한다.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으로는 무주택 청년 취업자에게 전·월세 주거비를 1년간 월 최대 20만원 지원하며, 혼인신고 5년 이내의 신혼부부에게 4년간 월 최대 10만원의 전세대출 이자를 제공한다. 무주택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가구에겐 3년간 월 최대 15만~25만원의 주택 구입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아울러 청년 농업인 지원, 자립 준비

청년을 위한 자립 수단 지급, 저소득 여성 청년을 위한 생리용품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청년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청년들이 꿈을 꾸고 실현할 수 있는 '청년친화도시'를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청년 정책 협의체를 구성했으며, 협의체 위원들은 청년정책에 대한 각종 의견 수렴 및 모니터링, 정책 제안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시정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들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각종 위원회 청년 비율을 20%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노관규 시장은 "지역의 미래인 청년들이 지방에서도 충분히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정주 환경을 완성해 가겠다"고 말했다.

순천=박철식 기자 2556pk@gwangnam.co.kr

여수, 화재피해주민 '피해지원금' 지급 조례 시행 후 첫 사례...금오도 대유마을 주민 대상

여수시는 화재로 주택이 전소된 피해자의 빠른 일상 회복과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피해지원금을 지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27일 제정된 '여수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이후 첫 사례다.

시는 조례에 근거해 지난 1월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건물 2동이 전소된 남면 금오도 대유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정하고 지난 9일 화재피해지원금을 지급했다.

피해 주민은 "추운 겨울날 발생한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어 막막했지만, 시에서 임시거처를 마련해주고 남

면사무소와 마을 사람들이 내 일처럼 도와줬다"며 "이번에는 지원금을 받게 돼서 두 노인네의 걱정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시는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 소유자·임차인이 화재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정도와 주택 가치, 과실 유무 등에 따라 화재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다만 주택이 빈집이거나 피해가 경미한(10% 미만 소실) 경우, 화재보험에 가입된 경우,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법령 위반 건축물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수=송원근 기자



"활짝 핀 벚꽃 길 걸어봐요" 최근 보성군 문덕면 천년고찰 대원사 일원에 벚꽃이 만개해 상춘객들이 나들이를 즐기고 있다. 보성군 문덕면 대원사 가는 길 5.5km는 약 4000그루의 왕벚나무로 가득 차 해마다 활짝 핀 벚꽃과 바람에 날리는 꽃잎으로 장관을 이룬다. 사진제공=보성군

함평, 수평적 조직 문화 확산 '소통피크닉' 시행 공감 형성

함평군은 공직 사회 내 소통을 강화하며 심리적 장벽을 허물고 유연한 조직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소통피크닉'을 매월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2021년부터 추진해온 소통피크닉은 직급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대화하며 조직 내 심리적 거리감을 해소하고 공감과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상의 군수와 공직자가 균등 운영, 건의 사항까지 다양한 주제로 소통하며 조식문화 개선과 행정 아이디어 발굴에도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함평=최윤근 기자 6263739@gwangnam.co.kr

"야간 볼거리 '녹동항 드론쇼' 보러 오세요"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개최...월 1회 국민관광

고흥군은 지역 대표 야간 관광 콘텐츠로 자리 잡은 '녹동항 드론쇼' 개막식을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녹동항 바다정원에서 최근 녹동항 바다정원 일원에서 펼쳤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드론쇼는 2025년 개막을 기념해 총 2025대의 드론이 동원됐으며, 고흥의 3대 발전 전략과 3대 교통인프라를 주제로 한 콘텐츠로 녹동항 밤하늘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또 200대의 드론에 불꽃을 부착한 새다른 연출을 통해 한층 더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군은 이번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녹동항 바다정원에서 드론쇼를 펼칠 예정이며, 매일 마지막 주 금요일은 고흥군청 앞 국민관광에서도 진행한다.

드론쇼가 펼쳐진 녹동항 바다정원 일원은 맛있는 먹거리로도 유명하다. 대표 음식인 장어구이와 장어탕을 비롯해, 계절 음식을 맛볼 수 있는 포장마차와 가벼운 간식을 즐길 수 있는 푸드트럭도 운영된다.

군은 역대 최대 규모의 드론쇼가 안전

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고흥경찰서와 모범안전자회의 협조를 받아 교통을 통제하고, 지역 사회 단체와 협력해 안전관리와 질서 유지에 힘쓸 예정이다.

공명민 군수는 "녹동항 드론쇼는 고흥군의 관광 히트 상품이다. 더욱 특별한 구경 기회로도 기대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올해부터는 매일 한 차례 고흥읍에서도 드론쇼와 버스킹 공연을 개최해 주민들에게 더 많은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

'지리산식물세밀화' 수상작 발표 대상 김재영씨 '자주괴불주머니'

구례군은 최근 '제3회 지리산 식물세밀화 공모전'의 수상작을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전국에서 총 522명이 참가한 '제3회 지리산 식물세밀화 공모전' 우수작으로는 총 27명(초등 9명, 중·고등부 9명, 성인부 9명)의 수상자가 선정됐다.

이번 공모전은 초등부 271명, 중·고등부 170명, 성인부 81명, 총 522명이 참여해 높은 관심과 열기를 보였다.

성인부 대상은 김재영씨(경기 수원)의 자주괴불주머니가 차지했다. 이 작품은 다양한 꽃과 잎의 형태, 해부학적 묘사와 더불어 종자 및 뿌리까지 세밀하게 잘 표현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구례=전창제 기자

'치유·힐링' 장흥 통합의학박람회 일정 확정

9월 26~30일 안양면서 개최

장흥군이 올해 개최 예정인 통합의학박람회 일정을 확정했다.

14일 장흥군에 따르면 최근 장흥통합의학컨벤션센터에서 추진위원 13명과 전남도, 장흥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5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 오는 9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장흥군 안양면 국제통합의학박람회장 일원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 추진위원을 위촉하고, 위원장으로는 원광대학교 장흥통합의료병원장인 이정환 원장이 2024년에 이어 재선출됐다.

임원 선출 후 박람회 기본계획과 대행사 모집 등 준비 현황을 공유하고, 추진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도 진행됐다.

올해 박람회는 참여형 체험과 치유·힐링 프로그램이 확대되며,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첨단 의료체험, 명사 초빙 강연, 전남 마음안심서비스 등 '버스샹총사'가 운영된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531@

No.1 Premium Balance Golf Ball

단 하나의 진짜

밸런스 라인

엑스페론